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지표 부진에도 M7 실적 기대감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9일(화) 미국 증시는 고용 및 성장을 부진에도, 빅테크 3분기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다우 -0.36%, S&P500 +0.16%, 나스닥 +0.78%)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44.3만 건을 기록하며 전월치(786.1만 건)와 시장 예상치(798만 건)를 크게 하회, 2021년 초 이후 최저치 수준. 구인 비율은 4.5%를 기록하며 전월(4.7%) 대비 악화했으며, 퇴직 비율은 3.3%로 지난 달과 동일. 이직률 또한 1.9%로 지난 달(2.0%) 대비 하락. 구인 건수와 이직률이 동반 감소하며 고용시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 컨퍼런스보드에서 집계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8.7을 기록하며 전월치(99.2)와 컨센서스(99.5)를 모두 상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10월 현재 여건 지수는 전월 대비 14.2pt 상승한 138.0을 기록하였고, 소득 및 고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반영하는 10월 기대지수 또한 전월 대비 6.3pt 상승한 89.1을 기록.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미래 미국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

미국 8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325.0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4.2% 상승, 전월(4.8%)와 비교해 둔화하며 2023년 10월 (4.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 동기간 20대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2% 상승하며 지난달(5.9%) 대비 둔화세. 집계측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전년대비 가장 작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테슬라(-1.14%)만 하락하고, 그 외에 애플(+0.12%), 마이크로소프트(+1.26%), 알파벳 (+1.78%), 메타(+2.62%), 아마존(+1.3%), 엔비디아(+0.52%)는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커뮤니케이션(+1.6%), IT(+1.1%)는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2.1%), 에너지(-1.4%)는 하락. 한편, 장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매출, 순이익 모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5%대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채권,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식시장 역시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띠는 부분. 트럼프 당선 시 1기 때처럼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떠 안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겠으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통한 증시 부양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10월 21~25일 동안 블룸버그에서 시행한 "미국 대선 이후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서베이"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음. 해당 서베이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 향후 "12개월 동안 S&P500의 주가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8%(vs 해리스 당선 시 13%)로 집계되는 등 해리스 당선보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시장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속도의 우상향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 또한 32%(vs 트럼프 당선 시 21%)로 집계됐다는 사실.

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단기적, 중기적인 시사점이 존재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선 끝난 직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증시 전반적인 모멘텀이나 업종 간 주가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임. 반면,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보다는 기업 실적, 연준 통화정책 등 펀더멘털과 매크로 환경이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이런 측면에서 전세계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의 실적시즌 분위기는 한국 등 여타 증시의 방향성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 현재 실적시즌이 진행 중인 미국 증시에서는 컨센스를 상회한 기업들의 비율이 75%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실적시즌 기대감 자체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그 여파로 S&P500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2분기 13.7%(YoY)에서 4.5%로 둔화될 것이며, M7을 제외하면 2분기 9.1%에서 -4.8%로 큰 폭 하향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 결국 이번 실적시즌은 매크로, 정치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실적 결과에 따라 업종 혹은 종목 간 슬림현상이 심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중반까지 미국 M7 실적 경계심리, 금리 상승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장 후반 과매도 인식 속 정부의 5대 국정과제 발표 등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에 성공(코스피 +0.2%, 코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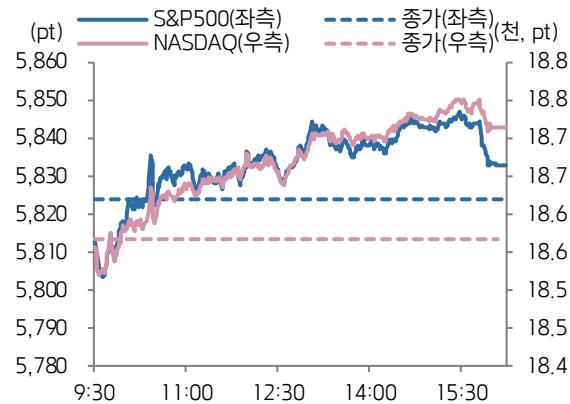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의 9월 JOLTS 구인건수 부진 및 3분기 GDP 하향에도 M7을 중심으로한 나스닥 신고가 효과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개별 이슈에 따라 업종간 차별화 장세 지속 예상.

미국 장 마감 후 AMD(+4.0%)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가이던스(75억달러 +/- 3억달러, 컨센 75.5억달러)가 시장 기대치를 넘지 못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7%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지만, 알파벳(+1.7%)이 광고, 클라우드 등 주력 사업 호조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4분기 CAPEX (131억달러, 컨센 127억달러) 상향 및 '25년 추가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으로 시간외에서 5%대 급등세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HBM 포함 관련 밸류체인주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

한편, 전일 국내 증시의 반등에는 정부와 여당이 5대 국정 과제로 반도체 지원법, K칩스법, AI 산업 육성법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담겼다는 점이 그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그간 국내 증시의 고유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대금 부진에 영향을 가했던 과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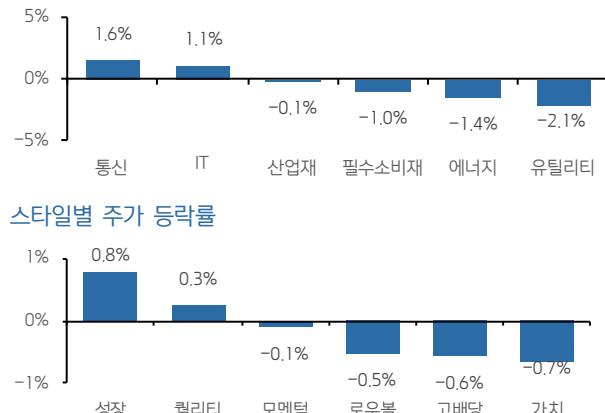
그러나 금투세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금일에도 금투세와 관련한 뉴스플로우에 따라 장중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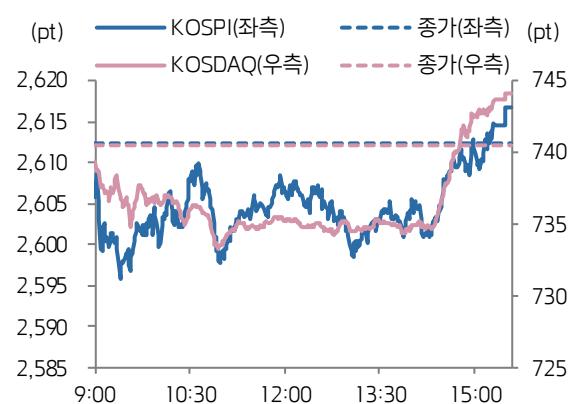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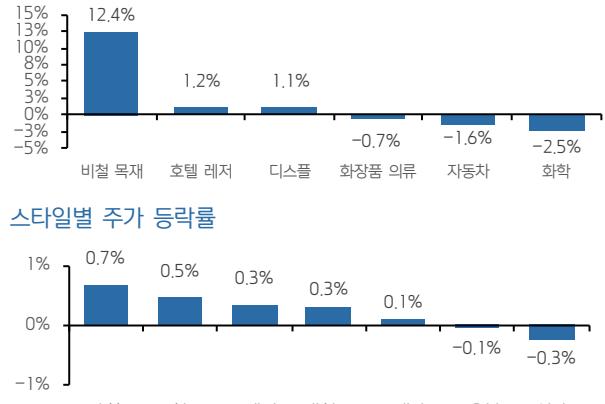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3.67	+0.12%	+21.37%	GM	51.54	-2.26%	+43.49%
마이크로소프트	431.95	+1.26%	+14.87%	일라이릴리	903.58	+0.89%	+55.01%
알파벳	169.68	+1.78%	+21.47%	월마트	81.70	-1.27%	+55.47%
메타	593.28	+2.62%	+67.61%	JP모건	222.90	-1.15%	+31.04%
아마존	190.83	+1.3%	+25.6%	엑손모빌	117.28	-1.36%	+17.3%
테슬라	259.52	-1.14%	+4.44%	세브론	148.52	-1.34%	-0.43%
엔비디아	141.25	+0.52%	+185.23%	제너럴일렉트릭	81.70	-1.3%	+55.5%
브로드컴	179.24	+4.2%	+60.57%	캐터필러	387.51	-0.79%	+31.06%
AMD	166.25	+3.96%	+12.78%	보잉	152.98	+1.52%	-41.31%
마이크론	108.18	+1.68%	+26.76%	넥스트에라	79.56	-4%	+3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17.80	+0.21%	-1.41%	USD/KRW	1,382.20	-0.25%	+7.31%
코스피200	348.28	+0.29%	-2.71%	달러 지수	104.29	-0.03%	+2.91%
코스닥	744.18	+0.5%	-14.12%	EUR/USD	1.08	+0.06%	-1.99%
코스닥150	1,275.02	+0.74%	-8.5%	USD/CNH	7.14	-0.03%	+0.24%
S&P500	5,832.92	+0.16%	+22.29%	USD/JPY	153.36	+0.05%	+8.74%
NASDAQ	18,712.75	+0.78%	+24.66%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233.05	-0.36%	+12.06%	국고채 3년	2.932	+0bp	-21.3bp
VIX	19.34	-2.32%	+55.34%	국고채 10년	3.120	-0.7bp	-5.5bp
러셀2000	2,238.09	-0.27%	+10.41%	미국 국채 2년	4.096	-4.2bp	-15.4bp
필라. 반도체	5,332.17	+2.31%	+27.7%	미국 국채 10년	4.254	-2.8bp	+37.5bp
다우 운송	16,308.79	+0.11%	+2.58%	미국 국채 30년	4.499	-3.1bp	+47bp
상해종합	3,286.41	-1.08%	+10.47%	독일 국채 10년	2.337	+5.1bp	+31.3bp
항셍 H	7,417.53	+0.36%	+28.5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369.03	+0.45%	+11.25%	WTI	67.21	-0.25%	-4.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1.12	-0.42%
Eurostoxx50	4,950.02	-0.4%	+9.48%	금	2,781.10	+0.91%	+28.75%
MSCI 전세계 지수	848.08	+0.02%	+16.65%	은	34.44	+1.29%	+42.99%
MSCI DM 지수	3,716.61	+0.29%	+17.27%	구리	436.05	-0.05%	+12.08%
MSCI EM 지수	1,137.94	+0.27%	+11.16%	BDI	1,382.00	-1.99%	-34%
MSCI 한국 ETF	61.68	-0.06%	-5.88%	옥수수	413.75	+0.73%	-17.8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0.50	+2.1%
비트코인	72,310.41	+3.88%	+70.11%	대두	979.00	-0.71%	-21.85%
이더리움	2,620.02	+4.14%	+14.8%	커피	248.10	-1.68%	+31.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